한글 번역 **Grade 3-7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p. 4

이 책의 저자

루이스 캐럴(1832~1898)

본명은 찰스 루트위지 도지슨(Charles Lutwidge Dodgson). 루이스 캐럴은 동화 작가로서의 필명이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수학자이자 논리학자였던 루이스 캐럴은 평생 유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고, 내성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유명인사들과 폭넓은 교류를 쌓았다. 루이스 캐럴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학 교수로 지냈지만, 수학자로서보다 동화 작가로 이름을 날렸다. 그의 대표작《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속편《거울 나라의 앨리스》로 인해 그는 사후 1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동화 작가로서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루이스 캐럴은 어린이들을 좋아하고,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즐겼다. 앨리스 시리즈도 그의 지인, 헨리 리델의 어린 딸 앨리스에게 들려 주었던 이야기를 글로 엮은 작품이다. 이 동화를 통해 루이스 캐럴은 근대 아동문학 확립자의 한 사람이 되었다. 이 밖에 주요 작품으로는《스나크 사냥(The Hunting of the Snark)》과《실비와 브루노(Sylvie and Bruno)》등이 있다.

p. 5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1865년에 발표된 동화로, 호기심 많은 소녀 앨리스가 꿈 속에서 이상한 나라를 여행하며 겪게 되는 모험을 그렸다.

자기 집 정원에서 따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앨리스는 이상한 모습의 흰 토끼를 따라 토끼굴에 빠져서 온갖 이상한 일들을 겪는다. 몸이 작아졌다 커지기도 하며, 눈물의 호수에서 만난 동물들과 특이한 달리기 시합도 한다. 못생긴 공작부인, 체셔 고양이, 모자 장수, 3월 토끼 등을 만나 황당한 장면을 목격하기도 하고, 그리폰이나 가짜 거북과 같은 희한하게 생긴 동물들을 만나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 또한, 트럼프의 하트 여왕

에게 처형당할 뻔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재판에 참석했다가 트럼프들의 공격을 받기도 한다. 한 마디로 이상한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고 현실과 반대되는 일뿐이다.

환상과 유머로 가득 찬 이 동화는 당시의 주로 교훈적이고 도덕적인 내용의 동화들과는 다른, 새로운 형식의 작품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p. 10

Before You Read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등장인물들이 여러분께 자기 소개를 합니다. 반갑게 맞아 주세요.

앨리스

나는 여러 가지 것들에 호기심이 아주 많아요. 또한 잘못된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한답니다. 어떻게든 말해 버려야 하죠! 아, 나는 또 가끔씩 아주 이상한 꿈을 꿔요. 어느 날 나는 별난 흰 토끼를 따라 아주 깊은 굴로 내려갔어요.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볼래요?

흰 토끼

이런, 나를 제대로 소개할 시간이 없군! 난 늦었어, 아주 늦었다고! 지금 몇 시지? 왕과 여왕이 내가 제때 다과 파티에 오길 기대하고 있어. 그래서 알다시피, 난 뛰어가야 해! 오, 이런, 내가 장갑을 어디에 뒀더라?

체셔 고양이

안녕! 미소 짓는 고양이를 본 적 있어? 사실 난 평범한 고양이가 아니야. 난 서서히 사라질 줄 알지. 아마 여러분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상한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미쳤어! 나와 같은 고양이와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분명 미친 거야!

모자 장수와 3월 토끼

제발 저리 가! 우리 식탁에는 더 이상 자리가 없어! 우리 식탁은 항상 엉망이야! 늘 차 마시는 시간이거든! 설거지할 시간이 없다고!

왕과 여왕

넌 누구냐, 그리고 이상한 나라에서 뭘 하고 있느냐? 뭐라고? 여왕한테 대답하지 않겠다고? 이런 무한! 목을 쳐라! 병사들아, 저 독자를 잡아라!

p. 26-27

Understanding the Story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작가의 뒷이야기를 살짝 엿봅시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뒤에 숨은 말더듬이 선생님

루이스 캐럴의 실명은 찰스 루트위지 도지슨입니다. 그는 일찍이 수학 천재로 인정받았습니다. 타고난 지적 재능으로 그는 아주 쉽게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주 유능한 교사는 아니었습니다. 도지슨은 종종 말을 더듬었고, 이로 인해 수업을 진행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도지슨의 말더듬는 버릇은 어른들에게 말할 때만 나타나고 어린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 줄 때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만, 이건 사실 꾸며낸 이야기죠.루이스 캐럴의 실명은 찰스 루트위지 도지슨입니다. 그는 일찍이 수학 천재로 인정받았습니다. 타고난 지적 재능으로 그는 아주 쉽게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주 유능한 교사는 아니었습니다. 도지슨은 종종 말을 더듬었고, 이로 인해 수업을 진행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도지슨의 말더듬는 버릇은 어른들에게 말할 때만 나타나고 어린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 줄 때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만, 이건 사실 꾸며낸 이야기죠.

도지슨의 이야기 솜씨는 그를 오늘날까지도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친구와 동료들의 딸들에게 이야기 들려 주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기본 윤곽이 탄생한 것이죠. 도지슨의 상관의 딸들이 그에게 이야기를 적어 달라고 졸랐고, 도지슨은 그것이 아주 인기 있는 책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출판사도 마찬가지였구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처음 출간되자마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도지슨은 큰 부자가 되고 유명해졌지만, 옥스퍼드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도지슨은 일종의 이중 생활을 한 것입니다. 하나는 엄격하고 인기 없는 수학 교수로, 또 하나는 돈 많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로서요.

p. 58-59

Understanding the Story

이상한 나라에 불쑥불쑥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요상스럽기 짝이 없는 그들을 좀더 이해해 봅시다.

이상한 나라의 별난 등장인물들

앨리스는 이상한 나라에서 별나고도 놀라운 등장인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들 중 다수는 루이스 캐럴의 실제 삶에서 중요했던 숨은 의미들을 간직하고 있죠. 예를 들어, 주인공 앨리스는 캐럴이 모신 실제 상관의 딸, 앨리스 리델을 모델로 탄생했습니다. 소설 속 앨리스는 성장이라는 문제와 겨루는 평범한 소녀죠.

일부 등장인물들은 실제 생활 속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친 모자 장수는 19세기 영국의 모자 장수들이 수은을 사용했기 때문에 종종 광기를 부리곤 했다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마찬가지로 3월 토끼는 3월 번식기에 정신 나간 듯한 행동을 하는 수컷 토끼를 상징합니다.

다른 등장인물들은 보다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체셔 고양이는 인생에서 유년기에서 성숙기로의 전이를 상징합니다. 그는 앨리스를 미친 모자 장수에게 보낸 다음 여왕에게 보내, 어른들이 인생의 법칙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시 말해 미쳐버리고 만다는 것을 보여 주지요. 여왕 그 자신은 그 중에서도 가장 미치광이 같은 인물입니다. 그녀는 교양 있는 행동에 대한 관

념을 모두 잃어버린 어른들을 대표합니다.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를 다니면서 보다 성숙하고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는 동안, 여왕의 행동은 갈수록 광기에 빠지죠.

전문 번역

[제 1 장] 토끼 굴로 떨어지다

p. 12-13 앨리스는 너무 졸려서 놀 수 없었고, 함께 놀 사람도 없었다. 무더운 오후라 그녀는 정원 나무 밑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언니가 옆에 앉아 있었지만, 언니는 책을 읽고 있었다. 앨리스는 그 책을 보았다. 책에는 그림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앨리스는 그림 없는 책을 좋아하지 않았다.

"가서 꽃이나 좀 꺾어야겠다." 하고 그녀가 혼잣말을 했다.

그녀가 막 일어서다가 토끼 한 마리를 보고는 곧 꽃에 대해서 잊어버렸다.

그녀는 종종 정원에서 토끼를 보았지만, 이 토끼는 달랐다.

그는 대부분의 토끼들처럼 커다란 분홍색 귀를 가졌지만, 대부분의 토끼들과는 달리 파란 코트를 입고 손에 시계를 들고 있었다. 그는 자기 시계를 보며 말하고 있었다. "이런! 이런! 너무 늦겠다!"

p. 14-15 "어머, 정말 별난 토끼네!" 앨리스가 혼잣말을 했다.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 그를 좇아 풀밭을 가로질러 달렸다. 흰 토끼는 급히 갔다. 그는 여전히 자기 시계를 보고 있었다.

'울타리에서 저 토끼를 잡아야지.' 하고 앨리스는 생각했다.

하지만 토끼는 울타리 쪽으로 오다가 갑자기 토끼 굴로 내려갔다.

앨리스는 그를 따라갔다. 그녀는 어두운 굴 속에 있었고,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다. 굴이 아주 깊거나, 아니면 그녀가 아주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아래로 떨어지면서 많은 것들을 보았다. 굴 벽면에 찬장들이 있었고, 지도와 그림들도 있었다. 그녀는 아주 먼 길을 떨어지고 또 떨어졌다! 그녀는 호주까지 계속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떨어지는 일은 갑자기 끝이 났다.

p. 16-17 앨리스는 자기가 마른 나뭇잎 더미 위에 앉아 있음을 알았다. 게다가 전혀 다치지 않았다. 그녀는 재빨리 일어섰다. 저 멀리 흰 토끼가 보였다. 그는 여전히 서두르며 자기 시계를 보고 있었다.

'이번엔 놓치지 말아야지.' 하고 앨리스는 생각했다. 그녀는 토끼 뒤를 좇았다. 토끼가 모퉁이를 돌 때, 그녀는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이런! 너무 늦었어!"

앨리스는 그의 뒤를 바짝 따라붙었지만, 그녀가 모퉁이를 돌았을 때, 흰 토끼는 이미 그곳에 없었다.

앨리스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는 길고 어두운 빈방에 있었고, 천장에 있는 몇몇 전등이 불빛을 비추었다. 방을 빙 둘러서 문들이 있었다. 토끼가 저 문들 중 한 군데로 나갔나?

그녀는 한바퀴 돌며 문을 하나하나 열어 보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았다. 열쇠도 없었다.

"토끼를 따라 토끼 굴로 내려가는 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야." 하고 그녀는 결정했다.

p. 18-19 갑자기 방 한가운데 놓인 작은 탁자가 눈에 띄었다. 탁자 위에는 조그만 황금 열쇠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녀는 열쇠를 집어 들고 문들 중 하나로 달려갔다. 그러나 열쇠가 너무 작아 문을 열 수 없었다. 앨리스는 한 번 더 문들을 전부 열어 보려고 했다. 그때 그녀는 낮게 드리운 커튼을 보았다. 그녀는 커튼 뒤에서 약 40센티 높이의 문을 발견했다.

'좀 전에 이것을 알아채지 못했다니 이상하네.' 그녀는 열쇠를 돌리며 생각했다.

문이 열렸지만, 앨리스는 반대편에 뭐가 있는지 보려고 무릎을 꿇어야 했다. 작은 문은 아름다운 정원으로 통했다. 앨리스는 그 아름다운 정원 안으로 몹시 들어가고 싶었지만, 덩치가 너무 컸다. 그녀는 낙담하며 탁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열쇠를 제자리에 갖다 놓다가, 탁자 위에 놓인 병 하나가 눈에 띄었다.

p. 20-21 "희한하네. 이 병은 전에 여기 없었는데." 그녀가 놀라며 말했다. 그녀는 그 병을 집어 들었다. 병에 종이 쪽지가 붙어 있었다. 앨리스는 '나를 마셔요.'라는 말을 읽었다. 그녀는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 음료의 맛이 너무 좋아서 그녀는 다 마셔버렸다!

"어머, 왜 이러지?" 하고 앨리스가 외쳤다. "정말 이상한 느낌이네."

그녀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곧 그녀는 겨우 25센티밖에 되지 않았다.

"이제 난 정원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녀가 외쳤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열쇠 생각이 났다. 열쇠는 탁자 위에 있었지만, 당연히 이제는 그녀가 너무 작아서 거기에 닿을 수 없었다.

'난 이 방에서 결코 나가지 못할 거야.' 앨리스는 슬퍼하며 생각했다. '난 저 탁자 다리를 기어오를 수도 없어.'

그때 그녀 옆쪽 바닥에 아주 조그만 케이크가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케이크를 들고 그 위에 적힌 '나를 먹어요'라는 말을 읽었다.

"이것이 날 더 크게 할까, 아니면 더 작게 할까?" 앨리스는 궁금했다. "난 지금 그다지 쓸모 있는 크기가 아니니까, 사실 상관없는 것 같아." 그녀가 결심했다. 그녀는 케이크를 입 속에 넣었다.

p. 22-23 "아야!" 머리가 방 천장에 부딪히자, 앨리스가 외쳤다. 그녀는 갑자기 2미터 70센티가 되었다! 그녀는 재빨리 작은 황금 열쇠를 집어 들고는 정원으로 통하는 문으로 갔다. 이제 그녀는 키가 너무 커서, 누워서 한쪽 눈으로 문 너머를 봐야 정원을 볼 수 있었다.

"아, 난 이제 어떡하지?" 앨리스가 말했다. "난 결코 저 정원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녀는 앉아서 울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물방울은 너무 커서, 곧 그 눈물들이 그 방의 절반을 차지하는 작은 호수를 이루었다.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앨리스는 울음을 그쳤다. 흰 토끼가 방으로 들어오자, 그녀는 고개를 들며 눈물을 닦았다.

그는 한 손에는 흰 장갑을, 다른 손에는 분홍색 부채를 들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앨리스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꺼냈다. "실 합니다만, 선생님."

앨리스의 목소리에 토끼는 깜짝 놀랐다. 그는 자신의 장갑과 부채를 떨어뜨리고는 돌아서서 달아났다.

[제 2 장] 눈물의 호수

p. 28-29 방 안이 너무 더워서 앨리스는 분홍색 부채를 집어 들고 부채질하기 시작했다.

"이런." 그녀가 혼잣말을 했다. "또 다시 나 혼자네. 집을 어떻게 찾아가지?"

그리고 그녀는 또 다시 울기 시작했다. 그런데 부채질을 하면 할수록 그녀는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그녀가 울면 울수록 눈물의 호수는 점점 커졌다. 곧 앨리스를 둘러싼 호수는 아주 깊어져서 그녀는 울음을 그치고 헤엄을 치기 시작해야 했다.

얼마 후 그녀는 물 튀기는 소리를 들었다. 호수에 그녀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돌아보는 곳마다 점점 더 많은 동물들이 보였다. 그들도 헤엄을 치고 있었다. 앨리스는 물 밖으로 나가고 싶었다. 그녀는 호수 가장자리로 헤엄쳐 갔고, 동물들은 그녀를 따랐다.

p. 30-31 물에 젖은 동물들 무리는 둑에 서서 앨리스를 보았다. 그녀도 그들을 돌아보았다.

동물들 모두와 앨리스는 몸이 젖어서 불편했다. 그들은 서로 얘기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몸을 말리지?" 앨리스가 물었다.

"난 몸을 말리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아." 도도가 말했다. 도도는 아주 커다란 새였다.

"그게 뭔데?" 앨리스가 물었다.

"경주야." 도도기 대답했디.

"어떤 경주인데?" 앨리스가 물었다. "우리에게 설명해 줘."

"경주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 보는 거야." 도도가 말했다. " 희들 모두 둥글게 서야 해."

앨리스와 모든 동물들은 둥글게 섰다.

"이제. 너희들 모두 주위를 뛰어야 해." 도도가 말했다.

그들 모두 30분 동안 주위를 뛰고 나서야, 갑자기 도도가 "그만! 경주가 끝났어."라고 말했다.

p. 32-33 "누가 이겼니?" 동물들 모두가 외쳤다.

도도는 잠시 생각하고 나서 말했다. "모두 이겼어. 모두가 상을 받아야 하고, 그녀가 상을 주어야 해."

그가 앨리스를 가리켰다. 앨리스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비스킷을 찾았다. 그녀는 각 동물에게 비스킷을 하나씩 주었다. 그녀는 딱 맞는 개수의 비스킷을 갖고 있었다.

'잘됐어.' 그녀가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도 상을 받아야 해." 생쥐가 말했다.

앨리스는 다시 주머니를 더듬었다. 그녀기 기진 것이라곤 골무뿐이었다.

"이건 너의 상이야." 도도가 말했다.

앨리스는 약간 바보 같은 기분이 들어서 웃고 싶었지만, 감히 그러지 못했다. 동물들 누구도 웃고 있지 않았다.

그런 다음 동물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비스킷을 먹었다. 그때 그들의 엄마가 그들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왔다. 자야 할 시간이었다. 앨리스는 동물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고, 갑자기 그녀는 또 다시 혼자가 되었다.

p. 34-35 앨리스는 동물들이 없어서 매우 슬펐다. 그녀는 다시 울기 시작했는데,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 보니 흰 토끼가 보였다. 그는 여느 때처럼 서두르며 뭔가를 찾고 있었다. 갑자기 그는 앨리스를 보더니 화를 내며 그녀에게 소리쳤다. "아니, 메리 앤,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당장 집으로 뛰어가서 내 장갑을 가져 와!"

물론 이것은 착각이었다. 앨리스는 결코 메리 앤이 아니었다! 하지만 흰 토끼가 너무 화가 나 보여서 앨리스는 두려웠다. 그녀는 즉시 달아났다.

그녀는 어떤 숲에 왔는데, 나무들 사이에 작은 집 한 채가 있었다.

'이게 틀림없이 흰 토끼의 집일 거야.' 하고 앨리스는 생각했다.

그녀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바로 그때 누군가 숲에서 나와 현관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나무 뒤에 숨어서 그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처음에 그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모자를 쓰고, 파랑과 금빛 재킷을 입고 있었다. 그는 얼굴만 빼고 사람처럼 보였다.

p. 36-37 그녀는 그의 얼굴을 보고, 그가 전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물고기였다!

분홍과 금빛 재킷을 입은 개구리가 문을 열었을 때, 앨리스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이상한 일들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개구리는 현관 계단에 서서 물고기에게서 커다란 흰 봉투를 받았다.

"여왕님의 전갈이오." 물고기가 말했다. "여왕님께서 오늘 오후 다과회에 공작부인을 초대하십니다."

물고기는 다시 숲으로 뛰어갔지만, 개구리는 그냥 현관 계단에 앉았다. 앨리스는 이제 좀더 용기가 생겨, 그 집으로 걸어갔다.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 앨리스는 궁금했다. 그녀는 공작부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싶었다.

"들어가도 될까요?" 앨리스가 개구리에게 물었다.

"난 여기에 며칠이고 앉아 있을 거야." 개구리가 대답했다.

"그건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잖아요." 앨리스가 말했다.

그녀는 문을 밀어 열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p. 38-39 "정말 시끄러운 소리야!" 앨리스가 말했다.

그녀는 양손으로 귀를 막았다. 못생기고 뚱뚱한 한 부인이 방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주 큰 소리로 울고 있는 아기를 안고 있었다. 또 다른 여자는 불 옆에 서 있었다. 아무도 그 소리에 신경 쓰고 있지 않았다.

'아기와 함께 있는 저 여자가 공작부인임에 틀림없어!' 앨리스가 생각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요리사임에 틀림없어.'

요리사는 수프가 가득 든 솥을 지켜보고 있었다. 앨리스가 재채기를 했다. 공기가 온통 연기와 후추 냄새로 꽉 차 있었다.

아주 커다란 고양이가 불 옆에 앉았다. 그는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었는데, 그것은 실로 매우 이상한 일이었다. 고양이들은 대개 미소를 짓지 않으니까 말이다.

[제 3 장] 체셔 고양이와 미친 다과회

p. 42-43 "당신 고양이는 왜 웃고 있죠?" 앨리스가 물었다.

"체셔 고양이라서 그렇지." 공작부인이 말했다.

"체셔 고양이처럼 웃지 마'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하고 앨리스는 혼자 생각했다. '하지만 정말로 체셔 고양이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

갑자기 요리사가 자기 손에 닿는 물건들을 죄다 공작부인에게 던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컵, 접시, 그리고 냄비들을 던졌다. 그 중 몇 개가 공작부인에게 맞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자 요리사는 수프 쪽으로 몸을 돌렸고, 공작부인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아기가 너무 큰 소리로 울어서 가사를 듣기는 어려웠지만, 앨리스가 들은 것은 너무나 어이없었다.

어린 애가 재채기를 할 때는 / 야단을 치고 때려 줘./ 개는 순전히 성가시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괴롭다는 걸 알고 있거든. /

p. 44-45 잠시 후, 공작부인은 노래를 멈추고 앨리스에게 아기를 던졌다.

"받아!" 그녀가 소리쳤다. "원한다면, 아기를 안아 봐도 돼. 난 가서 여왕님을 뵐 준비를 해야 하니까." 그녀가 급히 방에서 나갔다.

앨리스는 감히 요리시와 함께 부엌에 머물 수 없었다. 그녀는 요리시기 자신에게 물건을 던지길 바라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아기를 바깥으로 데리고 갔다.

'아기를 집으로 데려가야 하겠어.' 앨리스가 생각했다. '아기를 여기에 두면 요리사와 공작 부인이 죽일 거야.'

아기가 아주 이상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안고 있기가 힘들었다. 또한, 아기는 줄곧 이리저리 움직였고, 아주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어머나! 얘가 왜 이러지?' 앨리스가 생각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아기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아기의 얼굴이 변하고 있었다. 눈이 점점 작아지고, 귀는 점점 커지고 있었다.

p. 46-47 "어머!" 앨리스가 외쳤다. "넌 아기라기보다 돼지처럼 생긴 것 같아. 아마 넌 진짜 돼지인가 봐! 집에 가면 내가 돼지랑 뭘 해야 하나?"

아기가 너무 심하게 이리저리 움직이기 시작해서 앨리스는 더 이상 아기를 안고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가 아기를 땅에 내려놓자 아기는 숲속으로 도망쳐 버렸다. 앨리스는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다.

그때 놀랍게도 체셔 고양이기 다시 눈에 띄었다. 그 고양이는 지금 겨우 몇 야드 떨어진 한 나무의 가지 위에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체셔 고양이야." 그녀가 얘기를 시작했다. "여기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알려 줄래?"

"그건 네가 가고 싶은 곳에 달려 있지." 고양이가 말했다.

"그건 별로 상관없는데." 앨리스가 말했다.

"그럼 어느 길로 가든 상관없잖아." 고양이가 말했다.

"하지만 난 어딘가에 도착해야만 해." 앨리스가 덧붙여 말했다.

"아, 넌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야. 네가 꽤 오래 걷기만 하면." 고양이가 말했다.

맞는 말이지만, 별 도움은 되지 않았다.

p. 48-49 앨리스는 하나 더 물어 보았다. "이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 그녀가 물었다.

고양이가 오른 을 가리켰다. "그 으로 가면 모자 장수의 집이 나올 거야. 다른 쪽으로 가면 3월 토끼를 만나게 될 거야. 네가 좋다면, 그들을 찾아가. 그들 둘 다 미쳤지." 하고 그가 말했다.

"아, 난 미친 사람들을 만나고 싶진 않아." 앨리스가 말했다.

"그건 어쩔 수 없어." 고양이가 말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미쳤어. 나도 미쳤고, 너도 미쳤어."

"내가 미친 걸 네가 어떻게 아니?" 앨리스가 물었다.

"넌 틀림없이 미쳤어." 고양이가 말했다. "미친 사람들만 여기에 오거든. 넌 여왕님과 차 마실 거니?" 그가 덧붙여 말했다.

"여왕님이 날 초대하지 않았어." 앨리스가 슬퍼하며 말했다.

"넌 거기서 날 보게 될 거야." 고양이가 말했다. 말을 하면서 그는 사라졌다.

p. 50-51 앨리스는 얼마 안 가서 3월 토끼의 집에 왔다. 집이 토끼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녀는 이 집이 3월 토끼의 집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 집은 토끼의 귀와 똑같은 모양의 길다란 굴뚝이 두 개 있었다. 지붕은 털로 만들어졌다.

'이런!' 앨리스가 그 집을 보자 생각했다. '3월 토끼가 너무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집 앞 나무 밑에는 기다란 탁자가 있었다. 3월 토끼와 모자 장수(앨리스는 그가 모자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모자 장수라는 것을 알았다.)가 탁자 한쪽 모서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다과회를 열고 있었다. 겨울잠쥐는 그들 사이에 앉아 있었지만 깊이 잠들어 있었다.

3월 토끼와 모자 장수는 앨리스가 자기들을 향해 오고 있는 것을 보자 소리쳤다. "테이블에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다고!"

"바보 같은 소리 말아요! 자리가 많은데요." 앨리스가 말했다. 그녀는 탁자 한쪽 끝에 있는 커다란 의자에 앉았다.

p. 52-53 "오늘이 이 달의 며칠이지?" 모자 장수가 물었다.

앨리스가 잠깐 생각했다. "4일이에요."

모자 장수가 자신의 커다란 회중시계를 보며 말했다. "이틀이 틀려! 기계 부품에 버터를 바르면 안 된다니까."

그는 화를 내며 3월 토끼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건 최고급 버터였어." 3월 토끼기 대답했다. 그는 모자 장수에게서 시계를 빼앗아 에치롭게 들여다보았다. 그러고 나서, 앨리스가 놀랍게도, 그는 자기 찻잔에 시계를 넣었다. 그는 시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앨리스가 침묵을 깼다. "정말 웃기는 시계네요!" 그녀가 말했다. "날짜는 알려 주면서 시간은 알려 주지 않으니 말이에요!"

"왜 꼭 그래야 돼?" 모자 장수가 물었다. "언제나 5시인데."

앨리스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서 탁자 위에 차 그릇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응." 모자 장수가 말했다. "항상 차 마시는 시간이라, 우리는 컵과 접시들을 닦을 틈이 전혀 없어."

p. 54-55 "겨울잠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줘야 해. 일어나, 겨울잠쥐야!" 둘이 함께 외쳤다. 모자 장수가 겨울잠쥐의 코에 약간 뜨거운 차를 부으니 겨울잠쥐가 천천히 눈을 떴다.

"우리에게 이야기 하나 해 줘!" 하고 3월 토끼가 말했다.

"그리고 빨리 해. 안 그러면 넌 다시 잠들 거야." 모자 장수가 덧붙였다.

"옛날 옛날에 세 자매가 있었습니다." 겨울잠쥐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우물 바닥에서 살았습니다. 자매들은 그림 그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겨울잠쥐는 천천히, 졸린 목소리로 이야기를 계속 했다.

"그들은 M으로 시작되는 것들을 모두 그렸습니다…"

"왜 M이에요?" 앨리스가 물었다.

하지만 겨울잠쥐는 다시 잠들었고, 3월 토끼와 모자 상수가 아주 세게 때렸는데도 그는 잠을 깨지 않았다.

앨리스는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집을 보기 위해 뒤돌았을 때, 모자 장수와 3월 토끼는 겨울잠쥐를 찻주전자 속에 집어넣으려 하고 있었다.

[제 4 장] 여왕의 정원

p. 60-61 길은 앨리스를 숲으로 이끌었다. 앨리스는 나무들 중 하나에 문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문을 밀어 보니 열렸다. 앨리스는 안으로 들어갔다.

나무에 있는 문은 화사한 꽃들로 가득한 아름다운 정원으로 통했다.

문 옆에는 커다란 장미 나무가 있었다. 그 나무에 있는 장미꽃들은 흰색이었는데, 세 명의 정원사들이 부지런히 그 꽃들을 빨갛게 칠하고 있었다.

'정말 희한하네!' 앨리스가 생각했다. 그녀는 그들을 보기 위해 더 가까이 갔다. 정원사들은 진짜 정원사들처럼 생기지 않았다.

사실, 그들은 전혀 사람 같지 않았다. 그들은 진짜 머리와 팔다리를 가진 것을 빼면 카드처럼 보였다. 정원사들은 화난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서로에게 소리지르고 있었지만, 앨리스를 보자 놀라서 붓을 떨어뜨렸다.

p. 62-63 "왜 저 장미꽃들을 칠하고 있는 거예요?" 앨리스가 물었다.

"그건, 아가씨," 정원사 중 한 명이 말하기 시작했다. "이 장미 나무는 빨간 장미 나무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로 흰 장미 나무를 심었어요. 만약 여왕님이 흰 장미를 보시면, 우리 목을 베어버리실 거예요. 그래서 얼른 칠하고 있는…."

그가 하던 말을 끝내기도 전에 다른 정원사들 중 한 명이 "여왕님이시다! 여왕님이시다!" 하고 외쳤다. 그리고 세 정원사들은 땅바닥에 엎드렸다.

앨리스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녀는 여왕을 보고 싶었다. 먼저 열 명의 병사들이 왔다. 아주 멋진 옷을 입은 10명의 신하들이 그들 뒤를 따랐다. 정원사들처럼 그들은 카드 모양이었다.

다음에는 여왕과 차를 마실 사람들이 왔다. 앨리스는 공작부인은 보지 못했지만, 흰 토끼를 보았다.

그녀는 고양이도 본 것 같았는데, 그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다음에는 하트의 잭이 왔다. 그는 왕의 왕관을 빨간 쿠션에 받쳐 들고 있었다. 마침내 앨리스는 하트의 왕과 여왕을 보았다. 그들은 앨리스가 집에 갖고 있는 카드의 그림들과 똑같이 생겼다.

p. 64-65 앨리스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서 기다렸다. 왕과 여왕은 그녀의 맞은편에 와서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얘는 누구냐?" 여왕이 하트의 잭에게 물었다. 그는 그저 미소를 지었고 바보처럼 보였다.

"애야, 네 이름이 뭐냐?" 여왕이 외쳤다.

"제 이름은 앨리스입니다, 폐하." 앨리스가 아주 공손하게 말했다.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두려워해서는 안 돼. 그들은 카드일 뿐이야!"

"그럼 이 자들은 누구냐?" 여왕이 말했다. 그녀는 정원사들을 가리켰다. 그들은 여전히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앨리스가 말했다. "제가 알 바 아니죠."

여왕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저 애의 목을 베라!" 그녀가 소리쳤다. 그녀는 너무 화가 나서 얼굴이 선홍색이 되었다.

"안 돼요!" 앨리스는 아주 큰 소리로 용감하게 말했다.

"얘는 어린 아이에 불과하오." 왕이 조용히 말했다.

p. 66-67 여왕은 잠잠했지만, 잠시뿐이었다.

장미를 보자 그녀는 또 다시 매우 화가 났다.

"저들의 목을 베라!" 그녀가 소리쳤다. 그녀는 세 정원사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들은 앨리스 뒤로 뛰어갔고, 누구도 눈치채기 전에 그녀는 재빨리 그들을 들어 올려 커다란 화분에 넣었다. 병사들은 정원을 이리저리 다녀 보았지만, 어디에서도 정원사들을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의 목을 베었느냐?" 여왕이 소리쳤다.

"그들의 머리는 사라졌습니다, 폐하." 하고 병사들이 대답했는데, 그건 꼭 맞는 말이었다. 병사들은 정원사들을 찾지 못했다고 감히 말할 수 없었다.

여왕은 또 다시 앨리스를 보며 물었다.

"가짜 거북을 본 적이 있느냐?"

"아뇨." 앨리스가 말했다. 그녀는 가짜 거북이 뭔지 몰랐다. 그녀는 가짜 거북 수프는 사실 거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기북 맛만 나기 때문에, 기찌 기북으로 불린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내가 정말로 가짜 거북을 볼 수 있을까?" 그녀는 궁금했다.

"그리폰이 널 데려다 줄 것이다." 여왕이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와 다른 사람들은 모두 차를 마시러 갔다.

p. 68-69 앨리스는 정원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된 것 같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 그녀는 그리폰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를 찾아서 가짜 거북을 보러 자기를 데려다 달라고 부탁할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오솔길을 따라 약간 어슬렁거렸다. 그러다 그녀는 뭔가를

알아보고 멈춰 섰다. 어떤 동물이 오솔길 근처에서 햇빛 속에 잠들어 있었다. 그가 깨어나서 앨리스를 보았다.

"그래서 여왕님은 네가 가짜 거북을 만나길 바라시지, 그렇지?" 그는 앨리스에게 말했다.

그가 눈을 비볐다.

"따라와. 내가 데려다 줄게." 그가 말했다.

앨리스는 그리폰과 함께 걸으며 곁눈질로 그를 보았다. 그녀는 호기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날마다 그리폰을 볼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의 상반신은 새 같았고, 하반신은 사자 같았다.

p. 70-71 그들은 멀리서 가짜 거북이 보일 때까지 말없이 걸었다. 가짜 거북은 바닷가에 있는 바위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빨리 와." 그리폰이 다시 말하자, 앨리스는 좀더 빠르게 걸었다. 이제 가짜 거북이 더 잘 보였다. 그는 거의 거북 같았지만, 머리와 꼬리는 송아지처럼 생겼다. 가짜 거북이 그들을 보았다.

"이 아가씨가 자네 얘기를 듣고 싶어 해." 하고 그리폰이 말했다.

갑자기 가짜 거북이 아주 슬퍼 보였다. 앨리스는 그가 가엾었다.

"내가 꼭 해야 한다면, 얘기해 주지." 가짜 거북이 말했다. "자리에 앉아서 내가 끝마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마."

앨리스와 그리폰이 앉았지만,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가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 끝내지도 않겠군.' 하고 앨리스가 혼자 생각했다. 그들 모두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드디어 가짜 거북이 말하기 시작했다.

p. 72-73 "한때 난 진짜 거북이었어." 그가 말했다.

아주 긴 침묵이 이어졌다. 그때 앨리스는 가짜 거북이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아마도 자기가 이제는 진짜 거북이 아니라 가짜 거북에 불과해서 울고 있을 것이다. 앨리스는 일어나서 예의상 "재미있는 이야기, 고마워요."라고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게 이야기의 끝인지 아닌지 정말로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좀더 기다렸다. 갑자기 가짜 거북이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어렸을 때 우린 바다 속 학교에 다녔지. 우리 선생님은 나이 많은 바다거북이었는데, 우리는 선생님을 육지 거북이라고 불렀어." 그가 말했다.

"왜 그를 육지 거북이라고 불렀어요?" 앨리스가 물었다. "당신은 그가 육지 거북이 아니라 바다거북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육지 거북이라고 불렀어." 가짜 거북이 화를 내며 말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넌 별로 똑똑하지 않은 거야."

p. 74-75 "넌 왜 그렇게 단순한 질문을 하니?" 그리폰이 물었다. 그 둘은 불쌍한 앨리스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정말 바보 같이 느껴졌다. 마침내 그리폰이 가짜 거북에게 말했다. "빨리 해! 우린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짜 거북은 앨리스에게 자신의 학교에 대해 얘기했다. 앨리스는 주의 깊게 들었지만, 그가 말한 것 모두가 좀 이상했다. 그가 공부한 과목들은 앨리스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과 아주 달랐다. 그녀는 사실 그가 쓰는 말들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질문을 하기가 두려웠다. 그녀는 가짜 거북이 또 우는 걸

바라지 않았다. 대신에 그녀는 공손하게 물었다. "하루에 몇 시간 수업을 받았어요?"
"첫날에는 10시간." 기찌 거북이 대답했다. "다음 날에는 9시간, 그 다음 날에는 8시간…."
"정말 희한하네!" 앨리스가 말했다.
"그래서 수업이라고 불리는 거야." 그리폰이 설명했다. "날마다 수업이 줄어들거든."

p. 76-77 앨리스는 이 새로운 착상에 대해 생각했다.
"11일째는 어떻게 됐죠?" 그녀가 물었다.
"물론 휴일이었지."가짜 거북이 말했다.
"그럼 12일째는요?" 앨리스가 물었다.
그녀는 날마다 수업이 줄어든다는 착상이 마음에 들어, 그것에 대해 좀더 알고 싶었다. 하지만 그리폰과 가짜 거북은 그 모든 게 너무 쉬워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수업에 대해선 그만 하자." 그리폰이 말했다. "이제 놀이에 대해 얘기하자."
"넌 바다 밑에서 산 적이 없지, 그렇지?" 가짜 거북이 앨리스에게 말했다.
"없어요." 앨리스가 말했다.
"바닷가재를 만난 적도 없겠네?"
앨리스는 "아뇨, 하지만 하나 먹어 본 적은 있어요."라고 말하려다가, 참고 그냥 "아뇨."라고만 말했다.
"그럼 넌 바닷가재의 카드리유가 뭔지 모르겠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앨리스가 말했다. "춤의 일종이에요?"
"우리가 보여 주지." 하고 가짜 거북이 말했다.

p. 78-79 그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구슬프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와 그리폰은 앨리스 주위를 돌며 춤을 췄다.
다음은 가짜 거북이 부른 노래이다.
"좀더 빨리 걸을래?" 하고 대구가 달팽이에게 말했네.
"돌고래가 우리들 뒤에 바짝 붙어서 내 꼬리를 밟고 있거든.
바닷가재와 거북들이 모두 얼마나 열심히 앞으로 가는지 봐!
그들은 자갈 위에서 기다리고 있어. 와서 함께 춤출래?
출래, 안 출래, 출래, 안 출래, 함께 춤출래?
출래, 안 출래, 출래, 안 출래, 함께 춤 안 출래?"
"고마워요." 그들이 다시 앉자 앨리스가 말했다. "정말 재미있는 춤이었어요."
"네가 좋다면, 또 다른 노래를 불러 줄게." 기찌 기북이 말했다.
"그녀에게 '거북 수프'를 불러 줘." 그리폰이 앨리스가 대답하기도 전에 말했다.
"네, 해 주세요." 앨리스가 힘없이 말했다. 그녀는 노래가 아주 길지 않기를 바랐다.

p. 80-81 가짜 거북은 눈에 눈물이 고인 채 시작했다.
"멋~진 수~프! / 멋~진 수~프! / 저~녁의 수~프 / 멋진, 멋진 수~프!"
그가 계속하려고 했는데, 그때 멀리서 함성이 들렸다.
"재판이 시작됩니다!"

"자, 가자." 그리폰이 말하며 앨리스의 손을 잡았다.

"어떤 재판인데요?" 앨리스기 물었디.

하지만 그리폰은 "따라와!"라고만 대답하고 더 빨리 달렸다. 멀리서 앨리스는 가짜 거북의 슬픈 노래를 계속 들을 수 있었다.

"저~녁의 수~프, / 멋진, 멋진 수프!"

[제 5 장] 재판

p. 84-85 앨리스와 그리폰이 법정에 도착했을 때, 하트의 왕과 여왕은 이미 그곳에 있었다. 온갖 종류의 수많은 동물들과 새들도 있었다. 앨리스는 흰 토끼를 보았다. 그는 왕 옆에 서 있었다. 그는 트럼펫과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으며, 매우 중요한 인물처럼 보였다.

왕이 판사였다. 앨리스는 그가 가발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판사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가발 위에 왕관을 쓰고 있었다. 앨리스는 그가 좀 바보처럼 보인다고 생각했다.

하트의 잭은 법정의 반대편에 서 있었다. 그는 죄수였고, 병사들은 그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열두 마리의 동물들이 상자 속에 앉아 있었다. 그들이 배심원단이었다. 그들은 모두 바쁘게 뭔가를 쓰고 있었다.

"저들은 왜 쓰고 있는 거죠?" 앨리스가 그리폰에게 물었다.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요."

"그들은 자기 이름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그리폰이 그녀에게 말했다.

p. 86-87 법정 한가운데에 커다란 잼 파이 접시가 하나 있었다. 앨리스는 배가 조금 고프기 시작했다.

'재판이 빨리 끝나면 좋겠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그럼 저 음식을 먹을 수 있을 텐데.'

갑자기 토끼가 트럼펫을 불었다. 법정에 침묵이 흘렀다.

"죄수가 저지른 짓을 낭독하라!" 하고 왕이 말했다. 토끼는 종이를 보며 읽었다.

"하트의 여왕님께서 파이를 몇 개 만드셨다.

모두 어느 여름날에.

그런데 하트의 잭이 그 파이를 훔쳐서

멀리 가져가 버렸다!"

"그가 훔쳤느냐?" 왕이 배심원단에게 물었다.

"아직 아닙니다. 아직요." 토끼가 말했다. "우린 먼저 많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앨리스는 자리에 앉아 귀를 기울였다. 흰 토끼는 명단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의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다. 그런 다음 왕이 그들에게 질문을 했다. 그들 중 한 명은 공작부인의 요리사였다.

p. 88-89 왕은 오랫동안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요리사에게 물었다. "파이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느냐?"

"대부분 후추로 만들어집니다." 요리사가 대답했다.

"아니에요, 잼입니다!" 법정에 있던 누군가가 소리쳤다.

"저 사람을 법정에서 쫓아내라!" 여왕이 외쳤다. "그의 목을 베어라!"

잠시 동안 이주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들렸다. 그리고 나서 토끼가 명단을 계속 읽었다. 모든 질문과 대답들이 앨리스에게는 아주 바보스럽게 느껴졌다.

그때 흰 토끼가 다음 이름을 불렀다. "앨리스!"

"네!" 앨리스가 외치며 벌떡 일어났다. 앨리스는 배심원단 상자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면서 실수로 상자를 밀어서 그만 상자가 뒤집어졌다. 동물들이 모두 상자 밖으로 떨어졌다.

p. 90-91 "배심원단 없이는 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 왕이 말했다.

앨리스는 가능한 한 빨리 그들 모두를 집어서 상자에 도로 넣었다. 하지만 그녀가 너무 서둘러서 몇 마리는 거꾸로 들어갔다.

"이번 사건에 대해 네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 왕이 앨리스에게 물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앨리스가 말했다.

"아주 중요한 얘기군." 왕이 배심원단에게 말했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시겠죠." 흰 토끼가 아주 공손하게 말했다. "그래, 물론이지." 왕이 말했다.

배심원단 동물들은 그것을 적었지만, 어느 누구도 앨리스에게 더 질문하지 않았다. 그녀는 재판이 지루해지기 시작했다.

그때 여왕이 가장 바보 같은 말을 했다.

"우린 이제 어떤 벌을 내려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잭이 파이를 훔쳤소?" 왕이 말했다. "먼저 배심원단이 결정해야 하오."

"아니에요." 여왕이 말했다. "벌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배심원단이 그가 그 일을 저질렀는지 결정해도 돼요."

p. 92-93 앨리스는 더 이상 조용히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너무 화가 나서 공손해야 한다는 걸 완전히 잊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다. "그건 바보 같은 소리에요! 처벌을 먼저 받을 순 없어요!"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저 아이의 목을 베어라!" 화가 난 여왕이 소리쳤다.

"난 당신들이 두렵지 않아!" 앨리스가 말했다. "당신들은 한 벌의 카드일 뿐이니까!"

앨리스가 말하자, 모든 카드들이 함께 공중으로 날아올라 그녀를 향해 내려왔다.

그녀는 그들을 쫓아버리려고 했다.

앨리스는 자기가 정원의 나무 밑에 누워 있는 걸 알았다. 그녀의 언니는 앨리스의 얼굴에서 나뭇잎을 털어내고 있었다.

"일어나, 앨리스!" 그녀의 언니가 말했다. "오래도 자는구나!"

"아, 아주 이상한 꿈을 꿨어!" 하고 앨리스가 말하며 언니에게 그 꿈에 대해 전부 얘기했다.